

보도시점 2026. 9. 1.(화) 10:30
< 9.1.(화) 석간 >

배포 2026.8.31.(월) 18:00

산업부 장관, G20 혁신장관회의 참석 및 한미 경제협력 확대 위해 방미

- G20 국가 간 AI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 논의 -
- 미 기업 투자신고식 및 루이지애나 제철소 기공식을 통한 쌍방향 투자 협력 심화 -

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일(화)부터 9월 4일(금)까지(미 현지시간 기준) G20 혁신장관회의, 투자신고식 및 현대-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(HPLS)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, 워싱턴 D.C. 및 루이지애나를 연이어 방문한다.

우선, 김정관 장관은 9월 2일(수)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개최되는 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여 AI 지식재산권, AI 표준, AI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AI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이어서 김 장관은 9월 3일(목) 워싱턴 D.C.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투자신고식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반도체, 첨단소재, 해상풍력 분야 미국 기업들의 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, 미 기업들의 한국 투자현황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.

아울러 김 장관은 9월 4일(금)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에 위치한 현대-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(HPLS) 기공식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. 동 제철소는 작년에 현대차그룹이 미 백악관에서 발표 후 현대차 투자가 추가된 260억불(현대제철 58억불) 대미 투자 계획의 하나로, 북미지역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. 또한, 행사에 앞서 김 장관은 제프 랜드리(Jeff Landry)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등 양국 간 상호호혜적,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김정관 장관은 이번 방문에 대해 “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한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, 미국 기업의 對한국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양국 간 활발한 쌍방향 투자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구진경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강지민 (044-203-5653)
	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주현 (044-203-5930)
		담당자	사무관	서민하 (044-203-5931)
	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	김정예 (044-203-4080)
		담당자	사무관	성제민 (044-203-4082)
	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	책임자	과 장	강연주 (044-203-4690)
		담당자	서기관	이수창 (044-203-4691)

